“세계 건설시장, 올 하반기 이후 본격 회복 가능성”

-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권역 및 부문별 성장률 분석* -

■ 2011년 세계 건설시장 환경

- Oxford Economics와 Global Insight와 같은 세계경제 및 건설 경기를 전망하는 보고서에 의하면, 2011년 상반기까지 해외건설 투자시장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
  - 당초 2010년에 건설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, 경기 침체 탈출을 위한 글로벌 금융시장 정책이 큰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일시적인 경기 침체를 초래함.
  - 이들 보고서는 2011년 하반기 혹은 2012년 상반기부터 건설 경기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

- 아시아태평양권역은 2011년부터 2020년 전까지 전체시장 평균 성장률인 약 3.5%보다 높은 5% 이상의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
  - 중동 및 아프리카, 남미권역에서도 지속적 성장이 예상됨.

- 주거부문 이외의 분야는 인프라 시설물 중심으로 2011년 하반기부터 성장이 가속될 것으로 기대됨.

■ 주요 권역 및 부문별 성장 전망

- 아시아태평양권역은 2014년까지 매년 5.7%의 성장률이 예상되고,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65%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
  - 특히, 최근 사회기반시설물시장의 성장률은 약 7.5%로, 향후 2~3년 동안에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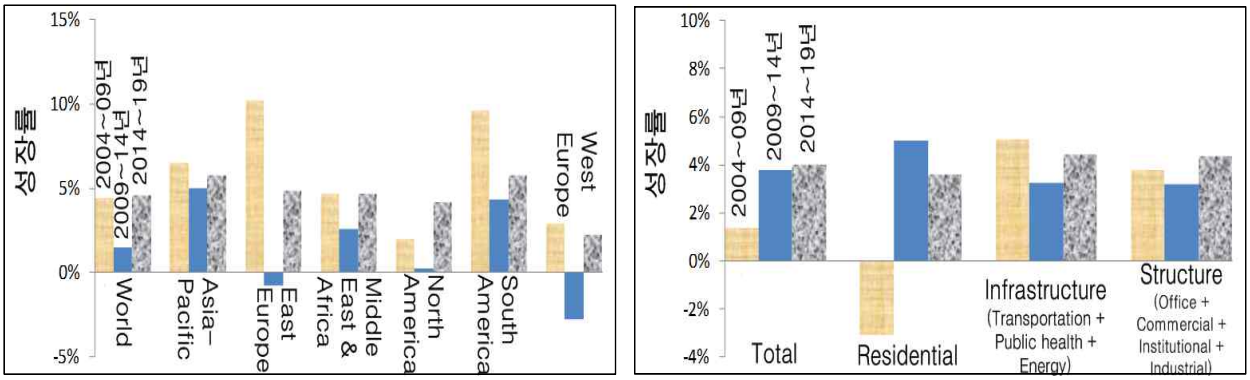
- 중동 및 아프리카권역에서는 유가 상승과 정부의 공공사업 투자 확대로 경기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는데, 이는 순조로운 건설투자시장 회복을 유도하고 있음.
  - 카타르, 아랍에미리트,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2010년 국가 성장세는 주춤하였으나, 인구성장에 따른 사업의 다각화가 이뤄져 성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

---

* 본고는 Global Insight 2010년 12월 보고서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음.

- 브라질, 칠레, 페루, 콜롬비아를 포함한 남미권역은 2010년부터 건설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여 2015년 전까지 평균 6.5% 성장률이 기대됨.
  -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투자 확대는 침체된 비주거 부문의 성장률 급하락을 저지한 것으로 판단됨.

<주요 권역 및 부문별 성장률>



■ 변화에 대한 신속한 선택과 준비…경쟁력 향상의 첫걸음

-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에 따른 주요 권역별 혹은 부문별 성장세는 차별화된 전략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
  - 맞춤형 사업 수행 체계의 신속한 수립은 차별화된 전략 중 하나로 판단됨.
  - 국내 업체들의 제한적 국가 및 사업에 대한 공격적 진출 전략은 수주 목표 달성에 근접할 수 있으나, 향후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핵심 역량 보유에는 한계가 있음.
  - 국제경쟁 입·낙찰에 대비한 국내 업체 내부 역량 강화는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지속적 전문 인력 양성으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도약을 촉진할 것임.

- 계속되는 국내 건설시장 침체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변화가 빠른 세계 건설시장 환경에의 적응력과 수용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  - 국내 업체들도 자사가 지닌 핵심사업 부문 강화와 변화에 유연한 사업 구조 구축으로 신속한 선택과 집중을 발휘할 때인 것으로 판단됨.

유위성(연구위원 · wsyoo@cerik.re.kr)